신행·포교 소식

포교사 신행 다질 팔재계법회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 9월 24~25일 법주사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포교사들의 지계 실천과 신행 점검을 위한 법석이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9월 24~25일 속리산 법주사서 '제14회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2003년부터 매년 포교사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온 팔재계법회는 올해 최다 인원인 3500여 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법회는 첫날 오후 5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저녁예불 △입재식 △제10기 전문포교사 및 제21기 신규포교사 품수식 △연수특강 △팔관재계 수계식이 진행된다. 이어 △독경 및 철야정진 촛불행진 △새벽예불 △참선실수 △회향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팔재계법회 대증명은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전계대화상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갈마사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교수아사리는 포교부장 무각 스님이 맡는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재가자로서 포교사들이 육재일마다 계를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 지계를 실천하며 포교사의 자세를 다지고자 한다"며 "출가자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 점차 늘어나는 포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서 사진기술 배워보자

서울 봉은사, 사진교실 신설… 수강생 모집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신도 및 일반인들을 위한 사진교실(기초반)을 신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교실은 9월 21일~11월 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봉은사 수련원서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사진편집법 △인화과정 △출사 등 이론 및 실급교육을 병행한다.

봉은사 측은 "평소 사진촬영과 카메라에 관심 있었으나 쉽게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카메라 사용법서부터 사진편집, 인화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특히 향후엔 중급반 · 고급반까지 전문 강좌를 개설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참여 접수는 9월 20일까지 봉은사 접수처 새신도연등(02-3218-74900)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수동기능이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료 10만원.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02)3218-483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영어로 나누는 '불교, 지금 그리고 여기'

Street Zen시리즈 입문과정 9월 20일 개강

불교 가르침을 일상생활서 겪는 문제에 적용해 마음챙김 ·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수행인 스트리트 젠(Street Zen) 입문과정이 열린다.

강의는 9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필동 감이당 베어하우스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중앙승가대 포교영어 · 불교영어 등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존 뷰드리(John Beaudry) 교수가 맡는다. 강의는 스트리트 젠 입문과정으로 '불교,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주제 아래 영어로 진행된다.

강좌는 △모든 것은 변한다(개요) △원숭이 마음과 헤어지는 연습(일상에서의 마음챙김) △내 마음의 독을 찾아(삼독과 성격 유형) △딱 걸렸어(존재의 참모습, 그 세 가지 특성) △고통의 바다서 헤엄쳐 나오는 법(네 가지 고귀한 진리) △인드라망 바로보기(중도-연기와 공)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 이치(카르마) △모두가 고통스럽다, 혼자가 아니다(자비) 순으로 이어진다.

010-9286-3399

윤호섭 기자

"올해의 교리왕은 바로 '나란다'"

가을하늘 아래 펼쳐진 제8회 나란다축제
동국대 일원 3000여 대중 佛法 되새겨


동국대 서울캠퍼스 체육관서 열린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며 즐거워하고 있다.

긴장감이 감도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체육관. 하얀 보드판을 앞에 두고 앉은 300여 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사회자의 말에 집중했다.

"두 손을 모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합쳐진 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불자끼리 인사할 때 나누는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문제를 듣자마자 답을 써내려갔다. 정답 '합장'이 발표되자 문제를 맞힌 아이들은 힘차게 보드판을 흔들며 환호했다.

폭염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성큼 다가온 9월의 첫 주말. 동국대서 불교교리축제인 '제8회 나란다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에는 전국 30개 사찰 30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첫 문제를 손쉽게 맞힌 아이들은 그 다음 문제에서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묻는 문제. 정답은 삼귀의였지만 많은 아이들이 불 · 법 · 승을 적으면서 80% 가까이 탈락했다.

이어 청법가가 정답인 문제서 '마하반야'를 적어 탈락한 조일상(초3) 군은 "알고 있는 건데 까먹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많이 하는 말을 적었다"고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최 측은 행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되자 곧장 패자부활전을 실시했다.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는 '송편'을 묻는 문제 덕분에 탈락자 대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20여 문제를 쉴 새 없이 풀어내고 16명만이 남았다. 그 중에서 유독 키가 작은 아이가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백승원 군이 홀로 고학년들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고 실력발휘를 하고 있었다. "1등 해서 상금을 받으면 보시하고 싶다"는 백 군의 말에 관중은 우레와 같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다음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탈락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몇 문제를 더 풀고 최후의 2인이 남았다. 서울 화계사 박준선(초6) 군과 서울 약사사 노승현(초5) 군.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 호명보살일 때 있었던 곳'을 묻는 문제에 노 군이 '도솔천'을 적어 최종 우승과 더불어 상금 2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노 군은 "상금은 부모님께 드릴 것이다. 또 절에서 1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지 스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 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100여 명이 참가한 일반부 경기서는 조계사불교대학 소속 이재림 씨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대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우리말 독송대회'서는 동대부속 영석고교의 '라훌라' 팀이 우승했다. 예불문을 주제로 한 독송대회는 시간관계상 각 팀마다 주어진 시간만큼만 독송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불 · 경전의 한글화를 보급하는 조계종단의 기치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만해광장서 진행된 체험마당은 만들기 · 상담 · 사진찍기 · 전통의상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회향마당 이후 동대문 특설무대서 열린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춤실력을 뽐내 흥을 돋웠다.

3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8회 나란다축제는 고령화가 깊어지는 불교계에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열린 법석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중등부 · 고등부 · 군장병 부문 평균 응시율이 80%(총 3449명)를 웃돌아 역대 최다 기록을 냈다.

윤승헌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과장은 "나란다축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매년 새로운 시도를 접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불자들도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란다축제와 함께 열린 제2회 은정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서는 국립전통예술고 2학년 이세영 학생(성악)이 종합대상을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가자 마음다스림의 비법, 〈서장〉 안에

불교인재원, 9월 26일 〈서장〉 강좌 개최

금나라의 외침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중국 남송시대, 간화선 주창자 대혜 종고 스님은 국가 요직의 인사들과 편지 문답을 통해 마음을 잘 다스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할 것을 안내한다. 그 문답이 바로 〈서장〉이다.

이런 대혜 스님의 〈서장〉을 우리말로 쉽게 배우고 익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9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총 19회에 걸쳐 〈서장〉 강좌를 개설한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사진〉은 9월 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혜 스님 당시와 같이 분단과 외세의 압력, 그리고 국론 분열에 빠져 있다"며 "대혜 스님의 서장 공부를 통해



재가자들이 화두참선으로 정진력과 용기를 내, 각박한 현실을 개척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좌에서는 고우 스님이 감수한 전재강 역 〈서장〉을 교재로 신규탁 연세대 교수,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박사, 불광연구원 범준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희승 성철연구원 연구실장, 오용석 연세대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사 면면을 보면 간화선 전공자와 실참수행자들이 섞여 있다.

연세대 신규탁 교수는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에서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선학회 학회장이다. 변희욱 박사는 서울대에서 최초로 간화선 박사 학위를 받은 간화선 전공자이며 오용석 박사도 중국 남경대에서 간화선 연구로 박사를 취득하고 연세대 연구원으로 있다. 범준 스님은 고려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불광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박희승 연구실장은 불교인재원과 동국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생활참선과 마음명상에 관한 다양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엄상호 이사장은 "재가자 교육과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재가자들이 쉽게 불교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불교사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대혜 스님"이라며 "대혜 스님은 남송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 행주좌와 화두참선과 연기실상을 본 견지에서 정치를 펼 것을 강조했다. 이 시대 화두와도 맞닿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강좌 후에는 10월 15~16일 1박 2일간 실참수련회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와 금봉암을 참배하고, 법문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교인재원은 30대 미만 청년들의 경우 무료로 강좌를 진행한다. 30대 이상은 12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40명까지다. (02)1661-110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

초/청/법/회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게 하는
생활속의 금강경 대강좌

이 시대의 희유한 선지식이며
불세출의 도인으로 알려진
백성욱 박사 (1897~1981)

금강경 실천수행을 통해, 불행과 행복이 다르지 않고, 빈곤과 풍요가 다르지 않고, 무지 무능이 지혜 능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범부가 성자가 되는 이치를 깨치신 금강산 대(大) 도인(道人).

- 1897년 서울에서 출생
- 1910년 정릉 봉국사에서 최하응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참여.
- 1925년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독일 철학박사 학위 취득
- 1928년 금강산 입산, 10년 수도로 견성오도(見性悟道)
- 1945년 광복 후 건국운동에 참여.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 내무부 장관직을 필두로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사장 역임
- 1953년 동국대학교 총장 역임
- 1962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금강경 수행도량을 개설하여 인연있는 후학들을 지도
- 1981년 출생하신 바로 그날, 아무 말씀 없이 열반에 드심

백성욱 박사의 제자
김원수 이사장은 누구인가?

- 1943년 경기 연천 출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R.O.T.C. 장교로 군복무후 엘리트 코스를 포기하고, 백성욱 박사 문중으로 4년간 출가하여 금강경 실천수행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29년간 역임
- 퇴임후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금강경 실천도량)을 설립
- 사재를 털어 법당 2채를 법인에 헌납
- 무료급식소를 설립(2004)하여 지금까지 30만명 급식 실시
- 조계종 사회복지부문 〈층무원장상〉 수상(2010)
-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1년간 〈생활속의 금강경〉 매주 특강(2015)
- 매년 〈금강경 연수원 세미나〉 개최
- 출간서적 :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붓다가 되신 예수님』 등

법문내용

-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한 자신의 변화과정
- 부처님 설법의 특징 및 금강경 공부의 당위성
- 금강경 대의를 통한 신해행증
- 금강경 3분에 나타난 진리 및 실천 수행법
- 금강경 4분부터 14분까지 대의 설명
- 금강경을 통한 재앙소멸 소원성취 원리 소개
- 금강경을 통한 획기적인 인성교육 및 인재(CEO) 양성 대안 제시
- 금강경을 통한 불법 진흥 및 출가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 '금강경 교육모델로 삼으면 하버드大 능가한다'

신청안내

- 강 사 : 김원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 일 자 : 2016년 9월 5일(월) ~ 11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12강좌)
- 시 간 : 저녁 7시 ~ 8시 30분
- 장 소 : BBS 불교방송 3층 다보원 법당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수 강 료 : 6만원 (3개월분)
- 납부계좌 : KEB 하나은행 266-890010-35104 예금주 : (재단법인)대한불교진흥원
- 접수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 문의전화 : (02) 707-1072
- 담 당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 주최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